

S-5

한국산 각질해면류 모래해면속 (*Psammocinia*)의 1신종 후보에 관하여

이경진*, 심정자

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

한국 제주도 삼양에서 채집된 각질해면류를 동정·분류한 결과 망각해면목 (Dictyoceratida) 가는실해면과 (Irciniidae)에 속하는 모래해면속 (*Psammocinia*)의 1신종 후보가 밝혀져 보고하고자 한다.

모래해면속은 스폰지의 외부 표면에 모래를 껍질처럼 층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내층의 기질이나 섬유 골격 안팎으로 모래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본 종은 8×6.5×2.5 cm의 크기이며 표면에 다른 모래해면의 종보다 많은 모래와 조개껍질의 조각을 갖고 있다. 특히 내층의 1차 섬유는 퇴화되어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2차 섬유가 큰 모래와 모래를 연결하여 그들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. 본 종은 제주모래해면 (*Psammocinia jejuensis*)과 비교할 때 피층의 섬유 배열상태, 내층의 1차 섬유와 2차 섬유의 특징이 매우 유사하였지만 제주모래해면에서는 피층의 1차 섬유에만 모래와 다른 해면동물의 골편 조각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단단한 해면질을 갖고 있는 반면 본 종에서는 피층의 2차 섬유에도 간혹 모래와 다른 해면동물의 골편 조각이 들어 있으며 폭신한 해면질을 갖는 것이 큰 차이로 나타났다.